

열운 선생의 문법 연구와 우리 어문관

고영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면서

열운(冽雲) 장지영(張志暎) 선생은 한헌샘 주시경 선생의 가장 이른 시기의 제자이면서 가장 오랜 수(壽)를 누린 분이시기도 하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한헌샘의 문하생으로서 어문학자로 발돋움한 사람 가운데서 열운보다 늦게 한헌샘의 문하를 거친 김두봉, 이규영, 김윤경, 최현배, 이병기, 신명균, 정열모 같은 분들은 열운보다 앞서 작고하였다. 열운은 주시경 선생이 주동이 되어 운영한 제3회 하기국어강습소(1909. 7. 10.—8. 31.)¹⁾의 졸업생이었으며, 이어 제4회 하기강습

1) 주시경 문하의 수학 연대가 60년대의 자필 이력서와 회상류의 글(〈나라사랑〉 29, '78, 164쪽)에는 戊申年(1908)으로 되어 있으나 〈한글모 죽보기〉와 1912년 및 1922년의 이력서에 1909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소(1910. 7. 15.-9. 3.)의 강사직을 맡기도 하여, 누구보다도 일찍이 한힌샘을 보필(輔弼)하였다. 한편 열운은 1916년에는 조선언문회(俗稱 한글모)의 사원에 선임되기도 하였다.²⁾ 한편 열운은 1921년 12월에는 한힌샘의 다른 후학들과 함께 조선어연구회를 결성하였으며, 1929년에는 조선 총독부 언문철자법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³⁾ 이어 1930년 12월에는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 통일안>의 제정위원으로, 그 뒤에는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옥고(獄苦)를 치렀고, 광복 후에는 한자폐지실행회 위원장, 조선어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 평생을 우리 어문의 정리와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열운이 우리 어문의 정리와 보급에 바친 이력(履歷)과 관련시킬 때, 문면화된 것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유고도 없지 않아 사실 열운의 어학사적 자리매김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을 한 자리에 놓고 면밀하게 검토하면 열운의 문법적 사고와 철자법을 비롯한 어문관(語文觀)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는 구석이 적지 않다. 필자는 <朝鮮語典>류와 <朝鮮語綴字法講座>를 비롯한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주로 열운의 문법적 체계의 특수성과 그가 우리 어문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사고의 가닥들을 가려 내어 보기로 한다.

2) 1910년대까지의 열운의 어문활동의 경력에 대하여는 고영근('83='94 : 236-74)를 보라. 앞으로는 번잡함을 피한다는 뜻에서 해당 문헌의 발표 연대의 앞 두 자리 숫자를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앞의 연대는 원 논문이 발표된 연대를, 뒤의 연대는 단행본에 실린 연대를 뜻한다.

3) <나라사랑> 29('78)에 실린 열운의 연보에는 총독부 철자법 심의위원회의 참여 연대가 1928년으로 되어 있으나 김윤경('38 : 581)에 따라 1929년을 취하였다.

2. 열운의 〈조선어전〉류와 문법적 사고의 특이성

열운의 문법적 사고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김민수 밖에(공편) 〈역대한국문법대계〉(① '57, '77)에서 열운의 유고(遺稿) 〈朝鮮語典 抄本〉⁴⁾이 공개되고 뒤이어 하동호 교수가 “조선어전의 계보”(〈나라사랑〉 29, '78)에서 문법관계의 유고들을 소개함으로써 열운의 문법가적 면모가 세상에 알려졌다. 필자는 열운의 문법관계의 유고들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술 연대를 추정하고 학설사적 위치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⁵⁾ 현재까지 알려진 열운의 문법적 저술에는 다음 5종을 들 수 있다.⁶⁾

(1) 열운의 문법적 저술

- 가. 朝鮮語文典
- 나. 朝鮮語典
- 다. 朝鮮語典講義
- 라. 조선말법
- 마. 朝鮮語典 抄本

-
- 4) 이 책의 다른 유인본인 문제안(文濟安)의 소장본이 〈한헌샘 주시경 연구〉 5·6('93)에 소개되기도 하였다.(뒤에 나옴)
 - 5) 이곳에 보이는 열운의 문법서류는 장세경 교수가 필자의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대여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 6) 이밖에도 하동호('78)에는 자필 원고본 “조선어”가 소개되어 있으나 현재 실물을 볼 수 없어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가)의 〈조선어문전〉⁷⁾은 반으로 접은 8절지 한지에 세로로 필경(筆耕)하였으며 두꺼운 표지로 제책하여 종이끈으로 아래 위 두 군데를 꿰매었다. 모두 42장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서술하였다.(사진 1)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조선어문전〉의 목차⁸⁾

총론

어전의 정의/언어/문자/조선어 및 조선어문/어전의 분과

제1편 음학

정의/음/음의 종류/자음의 삼성(三聲)/음의 단복(單複)/모음과 자음의 단복/모

음의 성별/음의 합성/자음 초종(初終)의 형세/모음의 생략/자음의 역량

제2편 자학(字學)

자(字)의 총론/자의 분류/자의 변화

목차를 보면 알다시피, 이 책은 음학과 자학 중심의 문법이다. 문장론이 빠져 있다.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의 6개로, 단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의 13개로 각각 잡되, 나머지는 그들끼리의 합성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주시경의 단모음 체계와 같고 후자는 ‘ㅇ ㅏ ㆁ’의 3개

7) 이 책은 하동호('78)에 “조선말본”이란 제목으로 책이름만 소개되어 있으나 이는 표지에 적혀 있는 가로풀어쓰기한 “스ㅏㅑㅓㅕㅗㅛ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에 기댄 것이다. 이는 뒤에 누군가에 의해 기입된 것으로 보이며(장세경 교수의 증언), 정식 이름은 본문의 머리에 나오는 〈朝鮮語文典〉으로 잡아야 한다.

8) 원문의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어 적되 특수한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었다.

를 추가한 것 밖에는 주시경('10:2, '14:ㄷ), 김두봉('16:8)과 차이가 없다. 3개의 옛글자를 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주시경의 초기 저작에서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사 체계는 9품사로서 주시경과 같으나 내용과 용어에 있어서는 김두봉과 비슷하다.

(3) 〈조선어문전〉의 품사 체계

명사[임씨]/동사[움씨]/형용사[언씨]/관사[언씨]/부사[억씨]/경탄사[늑씨]/
인접사[것씨]/접속사[잇씨]/결사[맺씨]

“관사”와 “부사”의 체계는 김두봉('16)에서 확립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김두봉의 관사와 부사 체계는 주시경의 “언, 억”의 체계를 수정·발전시킨 것인데 이규영의 〈현금 조선문전〉('20), 최현배의 〈우리말본〉('37)을 거치는 사이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언씨, 늑씨, 맺씨”는 김두봉의 용어인데 이규영의 문법('20)을 거쳐 장지영에 이른 것이다. 주시경은 “엇, 놀, 꾹”으로 불렀었다.⁹⁾

이 유고는 지은이가 군데군데 붉은 글씨로 교정을 보았다. “음학”의 괄호 안에 “소리갈”이란 주시경의 용어를 붙였다든지(사진 2), 초고의 ‘、’를 모두 ‘卜’로 바꾸었다든지, ‘子音 닿소리’와 같이 초고의 한자어 용어 옆에 고유어를 달아 놓은 것이 그러하다. 초고를 작성할 때에는, 국한문 혼용을 한 점

9) 주시경의 문법 체계 및 문법 용어의 특수성과 변천 양상 및 김두봉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고영근('83:41-4, '95a, '95b:178)를 보라.

등과 관련시킬 때, 한자어 용어가 더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고유어로 고치는 것이 자신의 어문관(語文觀)에 합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뒤에 나옴) 이런 점에서도 이 책은 현전 유고 가운데서 가장 앞선 저술이라고 판단된다. 대체로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된 1921년부터 1.2년 뒤인 1922-1923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다.

(1나)의 〈조선어전〉은 앞의 〈조선어문전〉과는 달리 체계를 갖춘 문법서이다. 한지(韓紙)를 반으로 접어서 세로로 필경을 한 국판 크기로서 113장이다. 장수가 맞지 않은 곳이 더러 보인다.¹⁰⁾ 빨간 실로 네 군데 구멍을 뚫어 제책하였다. 책 끝에 “1924. 5. 24, 冽雲 張志暎 先生 著作”이라 적혀 있고 “라기룡 백임”이라고 하여 필경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 이로써 〈조선어전〉의 유인(油印) 연대는 1924년임을 알 수 있다. 현전 유고 가운데서 필경 연대가 가장 분명한 것이다. 앞의 〈조선어문전〉과 같이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중요 목차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4) 〈조선어전〉의 목차

제1장 總論

語典의 뜻/말과 글/글의 두 가지¹¹⁾/조선말과 조선글

제1편 音學

소리[音]/홀소리[母音]/닿소리[子音]/음의 단복(單複)/모음과 자음의 합

10) 이 점에 대하여는 하동호('78)에서 지적되어 있다.

11) 원본에는 “제3절”로만 되어 있고 제목은 비어 있는데 다음에 보일 (1다)의 〈조선어전강의〉를 참고하여 필자가 임의로 보충하였다.

음/연습/음조/자음의 접변

제2편 字學

씨의 總論/씨의 種類/씨의 겹뭉/씨의 바꿈

제3편 월[文章]

월의 감[文의 格]/월의 마디[文의 節]/월의 종류(훈월, 거듭월)

앞의 〈조선어문전〉에서 빨간 색으로 교정한 부분에 따라 고친 것이 많고 특히 용어의 경우 대부분 “홀소리[母音]”과 같이 고유어 용어를 앞세우고 한자어 용어는 괄호 안에 넣었다.(사진 3)

음학체계에 있어서 모음체계는 변동이 없으나 자음체계에 있어서는 〈조선어문전〉에서 제시한 ‘ㅇ ㅈ ㅊ’의 세 글자가 삭제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시경(‘14)과 김두봉(‘16)의 체계와 같은 것이다.

품사체계는 9품사인데 체계는 물론 용어에 있어서도 앞의 저술과 차이가 없다. 〈조선어문전〉에서는 품사체계만 나와 있는데 〈조선어전〉에서는 자학에서 “씨의 겹뭉,씨의 바꿈”이 추가되었고 또 문장론이 보충되었다. “씨의 겹뭉,씨의 바꿈”은 주시경(‘10)과 김두봉(‘16)의 체계를 종합하되 주시경을 많이 따른 것 같다. 우선 주시경은 조어법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서술하였으나 김두봉은 품사별로 분산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시킬 때 그러하다. 또 “씨뭉바꿈”에서, 이를테면 ‘벗은 옷’과 같은 예에서 ‘벗은’을 “언”으로 처리한 것도 주시경의 영향이 강함을 입증한다. 품사체계는 김두봉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벗은 옷’의 ‘벗은’은 동사에 ‘것씨’가 붙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시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편은 주시경과는 완전히 다르고 김두봉과 거의 일치한다. 주시경의 “짚듬갈” 체계가 김두봉('16)에 와서 관습적인 전통문법의 체계로 모습을 바꾸어, 이후 오랫동안 우리의 규범문법을 지배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¹²⁾

이 책에는 더러 빠진 곳이 없지 않지만 <조선어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연습”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1나)의 <조선어문전>은 음학에서 문장론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1920년대 전반의 국어 문법서의 하나로 충분히 등록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시경 후계학자로서는 김두봉의 <조선말본>('16), 이규영의 <현금조선문전>('20)에 이은 세 번째 저술을 남긴 셈이다. 지은이 나름의 독특한 문법이론을 전개한 것은 찾기 어렵지만 대체로 김두봉의 체계와 용어를 계승·발전시키는 원칙을 지키면서 문법 지식을 보급시키는 관점에서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규영의 문법과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국어 문법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다)의 <조선어전강의>는 연재물을 뜯어 합철한 것으로 어디에 실렸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¹³⁾ 우선 목차를 보이기로 한다.

(5) <조선어전강의>의 목차

총 론

12) 관련 내용은 고영근('83: 47, 305)를 보라.

13) 관련 서지 사항은 하동호('78)을 보라.

어전의 뜻/말과 글/글의 두 가지/조선말과 조선글

제1편 음학

소리[音]/홀소리[母音]/닿소리[子音]/음의 단복/모음과 자음의 합음/연습
/자음의 접변

제2편 자학

씨의 총론/씨의 종류

“씨의 종류”에서 “맷씨”까지만 보이는 미완의 글이다. 장절의 편성과 제목, 그리고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의 〈조선어전〉을 대본으로 하여 조판한 것이 틀림없다. 음학체계와 품사체계 등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1라)의 〈조선말법〉은 신국판 크기의 갱지를 반으로 접어 세로로 펼경한 것이며 모두 35장이다. 끝에 “朝鮮近世史”(10장)란 내용의 글이 붙어 있는데 누구의 것인지 분명치 않다. 〈조선말법〉은 주시경의 〈말의 소리〉(‘14)처럼 장치를 ‘ㄱ ㄴ ㄷ’ 등으로 매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표지 안쪽에 중앙고보를 졸업한 張世永¹⁴⁾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장지영이 중앙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¹⁵⁾에 사용한 교재인 것으로 보인다. 1931년경의 저술이라 보아 둔다. 조선어연구회의 동인지 〈한글〉 창간호(‘27)의 “정리한 철자법”¹⁶⁾에서 주장된 어두의 ‘ㄴ’ 표기(예 : 닛어, 닛술)와 극도의 끊어

14) 장세영은 열운 선생의 조카이며 장세경 교수와는 사촌간이다. 표지 안쪽에 기록된 사실에 기대면 장세영은 1912년생으로 1932년 중앙고보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15) 장지영의 중앙고등보통학교 재직 사실은 〈나라사랑〉 29(‘78: 36)에 실린 열운 “내가 걸어온 길”을 보라.

16) 조선어연구회의 “정리한 철자법”에 대하여는 안병희(‘96)을 보라.

적기 표기(예 : 값애)가 반영되어 있다는 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뒤에 나옴) 우선 목차를 보기로 한다.

(6) <조선말법>의 목차

소리주비 音韻部

소리의 값애/장애되는 정도와 값애/소리의 거듭/홀소리의 줄임/닿소리의

늦어 바꿈/버릇소리/말의 버릇/소리의 뜻바꿈

단어의 구조

체언/형용사/동사/조사

“소리주비”는 그 아래 적은 “음운부”를 고려할 때 이전에 사용되어 오던 “소리갈” 대신으로 사용한 것 같다. ‘주비’는 ‘部’의 고유어이다. 음운부에서 특이한 것은 자음을 다음의 세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7) 자음의 분류

가. 장애되는 자리

나. 장애되는 정도와 갈래

다. 목청 소리를 띠고 안 띠는 것

(ㄱ쪽)

(가)는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에 해당한다. 양순음, 설단음 등의 용어는 볼 수 없고 ‘넙술과 넙술’과 같이 조음 위치만 들었다. (나)는 조음방식에 의한 자음의 분류인데 크게는 “다막음소리[閉鎖音]”, “덜막음소리[狹

惝音]”를 두고, 전자에는 “헤침소리[破障音], 코소리[鼻音/密閉音]”를, 후자에는 “여린헤침소리[輕破障音], 굴림소리[振動音], 갈임소리[摩擦音], 뉘갈림소리[側音], 여린갈림소리[輕摩擦音]”를 각각 두었다. (다)에는 ‘ㅁ, ㄴ, ㄹ’을 목청소리를 띤 것으로,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자음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운은 지금은 폐기된 중세의 문자도 같이 다루었다. 자음의 분류는 김두봉(‘22 : 24)¹⁷⁾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 같다. “헤치소리”를 “헤침소리” 등 현실성 있는 용어로 바꾸고 ‘막음의 자리’를 ‘장애되는 자리’ 등으로 바꾼 것 밖에는 큰 차이가 없다.

모음에 대하여도 열운은 이전과는 다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8) 모음의 분류

- 가. 혀의 높낮이 곧 입의 여닫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
- 나. 혀의 앞뒤의 오르내림으로 되는 것
- 다. 입술의 등글고 넓적함으로 되는 것

모음의 분류에서 큰 변화는 김두봉(‘22 : 25)의 모음분류법을 받아들여, 주시경의 6모음론을 버리고 김두봉(‘16/’22)의 8모음론과 최현배(‘29)의 9모음론을 절충하여 수용하였다는 사실이다.¹⁸⁾ 두 모음론의 차이는 ‘니’를 넣느

17) 김두봉(‘22)는, 원본은 읽기가 어려워, <역대한국문법대계>에서는 다시 조판을 하였다. 이 곳의 쪽수는 조판된 것을 가리킨다.

18) 외술의 모음론은 그 전개 양상이 단순치 않다. 관련된 논의는 권인한(‘90), 고영근(‘95b : 89, 123)을 보라. 외술의 9모음론은 최현배(‘27)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조선말법>의 상한 연대를 1927년 이전으로는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절충하였다는 것은 모음의 분류에서는 9모음론을 받아들였으나 음의 합음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니'를 제외하여 8모음론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가)에서는 넓은 소리(ㅏ ㅑ ㅓ ㅕ)와 좁은 소리를(ㅡ ㅣ ㅜ ㅗ ㅛ), (나)에서는 혀앞바닥소리(ㄹ ㅈ), 혀가운데바닥소리(ㅌ ㅊ ㅛ), 혀뒤바닥소리(ㅡ ㅑ ㅓ ㅕ)를, (다)에서는 입술등근소리(ㄱ ㅌ ㅛ), 예사입술소리(ㅏ ㅑ ㅓ), 넘적입술소리(ㅡ ㅣ ㅕ)를 각각 두었다. 모음을 혀의 높낮이, 혀의 위치, 원순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는 태도는 김두봉('22)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열운은 최현배의 모음체계를 김두봉('22)의 분류틀에 짜맞추어 넣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두봉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나)를 김두봉은 “앞홀소리”와 “뒤홀소리”로 나눈 데 대하여 열운은 중설모음을 두어 셋을 세웠다. (다)도 김두봉은 “입술등근홀소리”와 “입술넘적홀소리”의 둘을 두었으나 열운은 “예사입술소리”를 더하여 셋을 두었다.

모음의 분류에서 9모음론을 받아들인 열운은 홀소리의 합음 과정에서는 '니'를 중모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것은 열운이 '니'를 단모음과 중모음의 성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모음의 분류에서는 단모음적 성격에 치중하여 9모음론을 전개하였고 합음 과정에서는 중모음으로 처리하여 8모음론을 전개한 것이다. '니'의 소리값에 대하여는 <조선어전 초본>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뒤에 나옴)

<조선말법>에는 음성상징론에 관련된 인식 체계를 엿볼 수 있다. 열운은 “소리 뜻 바뀔”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말의 음성상징 현상을 다음과 같이 배 풀었다.

(9) 조선말에는 그 뜻의 너그럽고 뽀뽀함과 크고 작음과 점잖고 잡(雜)됨과 얹고 녹록함을 소리로써 갈라 나타내는 것이 있으니 이 소리의 듣기 좋은 것이 아음(雅音), 듣기 나쁜 것이 야음(野音)이라. 음의 아야(雅野)는 모음과 자음에 다 있는 것으로 ㅏ ㅑ ㅓ ㅕ 들은 아음에 붙고 ㅓ ㅗ ㅜ ㅛ 들은 야음에 붙으며 자음의 아야(雅野)는, 자음의 된소리는 야음에 붙고 그 나머지는 아음에 붙나니 조사(助辭)의 밖에 다른 품사에 다 이 구별이 있나니라.(ㄱㅇ 쪽)(현대맞춤법에 따라 고쳐적음)

(9)의 설명에 따라 열운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에 아음과 야음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예 가운데는 설명과는 달리 적정치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격적인 음성상징론의 전개라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주먹 : 조막’은 현실적으로 확인되지마는 ‘벼락 : 바락’은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립어이다. 부사에는 ‘땡땡땡 : 땡땡땡’의 대립처럼 의성·의태어의 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열운의 음성상징론적 인식은 다음에 보게 될 〈조선어전 초본〉에서 많이 수정되지만 그때까지의 문법서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이 평가해야 열운의 문법적 면모라고 하겠다.(뒤에 나옴)

〈단어의 구조〉는 현대적 관점에서는 형태론이라 부를 수 있는데 조사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하는 결장이다. 이곳에서는 국어 어휘의 기원과 조어 방식, 의미 변화에 의한 유형을 30여개 항목에 걸쳐 제시하였다. 이는 물론 〈조선어전〉에서는 볼 수 없다. 조어법에 관한 사항은 문법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어휘론의 소관으로 돌려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또 이곳에서 열운은 옛날의 한학자들의 한자 읽는 법에서 품사 분류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곧 '밥식 食'과 같은 명사(부사, 접속사도 마찬가지임)는 활용 없이 바로 조선말에 한자음만 붙이어 읽으나 동사와 형용사는 '먹일 食, 착할 善'과 같이 활용을 시키어 읽는다는 점과 관련시키면 품사의 이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중세의 언해 문헌에 품사에 따른 일정한 새김 방식이 존재한다는 보고¹⁹⁾ 등과 관련시킬 때 선구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1마)의 〈조선어전 초본〉은, 두 번에 걸쳐 공개되었음(앞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학사료에서 본격적으로 평가받은 바 없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1가-라)의 4종류의 문법서류와 관련시켜 가면서 열운의 문법적 사고 전반을 휘감해 보려고 한다.

〈조선어전 초본〉은 모두 유인본으로서 현재 네 종류가 전한다.²⁰⁾ 첫째는 1932년의 양정고보의 교재, 둘째는 1934년의 양정고보 교재²¹⁾, 셋째는 1935-6년 사이의 양정고보 교재²²⁾, 넷째가 1937년의 양정고보 교재이다. 앞의 두 책은 지은이의 글씨인 듯하고, 뒤의 두 책은 전문 필경사에 의해 쓰여졌다. 둘째책은 지은이의 교정본이기도 하여 군데군데 붉은 글씨로 잘못을

19)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안병희('77: 17)을 보라.

20) 자세한 서지 사항은 하동호('78)과 문제안('93)을 보라.

21) 이 책은 현재 장세경 교수가 간수하고 있다. 하동호('78)에는 책 주인이 '鄭文互'라고 하였으나 '鄭文圭'의 잘못이다.

22) 이 책은 문제안이 〈한헌샘 주시경 연구〉 5·6('93)에 영인한 것이 아닌가 하며 같은 책이 양정고등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고쳤으며 내용의 변경이 가해진 부분도 상당하다. 셋째와 넷째책에 이들 교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어전 초본>의 확정본은 셋째책으로 잡는 것이 옳아 보인다. 국한문혼용체이기는 하여도 용어나 표현을 고유어로 바꾼 것이 많다. <한국역대문법대계> ①-56 가운데 실려 있는 마지막 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0) <조선어전 초본>의 목차

제1편 소리

말과 글/글의 두 가지/홀소리와 닿소리/홀소리의 갈래/닿소리의 갈래/훑소리와 겹소리[單音과 複音]/홀소리의 거듭[母音의 合音]/子音의 強音/된시옷/반힘/音調/子音의 接變/母音의 轉換

제2편 字學

씨의總論/남씨[名詞]/언씨[形容詞]/움씨[動詞]/것씨[助詞]/닛씨[接續詞]/맺씨[終止詞]/언씨[冠形詞]/억씨[副詞]/늑씨[感歎詞]

제3편 씨의 겹몸[字의 複體]

남씨의 겹몸[名詞의 複體]/언씨의 겹몸[形容詞의 複體]/움씨의 겹몸[動詞의 複體]/겹씨의 겹몸[助詞의 複體]/닛씨와 맺씨의 겹몸[接續詞와 終止詞의 複體]

제4편 씨몸바꿈[字體變化]

남씨의 바꿈[名詞의 變化]/언씨의 바꿈[形容詞의 變化]/움씨의 바꿈[動詞의 變化]

제5편 文章[월]

월의 감[文의 格]/월의 마디[文의 節]/월의 갈래[文의 種類]

(1나)의 <조선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제2편 자학을 3개 장으로 나눈 것 밖에는 전반적인 체계가 같다. 요컨대 열운은 (1다, 라)와 <조선어전 초본>의 교정본을 거치는 사이에 내용을 불리고 고치면서 체계를 다듬어 <조선어전 초본>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변경은 제1편 “소리”(음학)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열운은 이전의 3종류의 어떤 초고에서도 자모음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조선어전 초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모음에 걸쳐 이름을 붙이고 있다.

(11) 자모음의 순서와 이름

가.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

(이) ㅜ(으)

나.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

(이응) ㅈ(지읒) ㅊ(히읒)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ㅊ(치읓)

(11가)는 전통적인 반절표의 순서를 취하였다. ‘ㄴ’은 (1가)에서 이미 교정을 통하여 버렸는데 무슨 까닭으로 다시 부활시켰는지 아무런 설명을 베풀지 않았다. (11나)는 최현배('28)에서 제안된 자음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²³⁾ 차이는 ㅎ과 ㅈ의 순서가 바뀐 것 뿐이다. ‘ㅎ’을 ‘ㅈ’ 다음에 두는 것은 (1가, 나)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특기할 것은 앞의 <조선말법>에서 시도된 모음 분류에 대한 기

23) 최현배의 자모명칭론에 대하여는 고영근('95b : 95-7)을 보라.

준을 명시하여 더 다듬었다는 것이다.

(12) 모음 분류에 대한 진전된 기준

가. 턱을 넓게 벌이고 좁게 벌임으로 다른 소리

나. 혀바닥을 높이고 낮힘으로 다른 소리

다. 입술을 둥글게 하고 납작하게 함으로 다른 소리

(3-4쪽)

(12가)는 (8가)의 “혀의 높낮이”를 턱의 벌이는 정도(흔히 턱의 각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현상에 더 맞는 조처라 생각한다. <조선말법>에서는 (8가)에서 혀의 높낮이에 의한 모음을 넓은 소리와 좁은 소리로 나누었는데 <조선어전 초본>에서는 그 정도를 세분하여 넓은 소리는 “훨씬 벌이는 것”(ㄱ ㅍ)과 “덜 벌이는 것”(ㄴ ㅊ)으로, 좁은 소리는 “더 벌이는 것”(ㄷ ㅌ ㄴ)과 “덜 벌이는 것”(ㅡ ㅍ)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4분법은 이미 김두봉('22:28)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열운은 <조선어전 초본>에 와서야 그것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었다. (12나)는 (8나)를 더 세분하였다. 혀의 앞바닥, 가운데바닥, 뒷바닥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들 또는 셋을 더 두었다. (12다)는 (8다)와 큰 차이가 없다. 김두봉('22)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이루어진 모음 분류로 보인다.

(1다)의 <조선말법>에서 열운은 ‘ㄴ’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파악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선어전초본>에서는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모음의 함음에서 ‘ㄴ’을 제외한 8모음만이 단음이라고 말하고 역시 ‘ㄴ’을 함음으

로 처리하였다. <조선말법>에서는 ‘니’의 소리값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 이곳에서는 셋으로 잡았다. ‘외손떡’의 ‘외’는 단모음이고 ‘참외’의 ‘니’는 ‘고’와 ‘ㅣ’의 합음이며 ‘외삼촌’의 ‘니’는 ‘고’와 ‘ㅣ’의 합음이라고 하였다.

자음의 분류에 있어서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조선말법>에서는 (7)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음위치, 조음방식, 목청 소리의 띠고 안띠의 세 개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 방식을 보여 준다.

(13) <조선어전 초본>의 자음 분류

- 가. 입소리와 코소리[口腔音과 鼻腔音]
- 나. 다막음소리와 덜막음소리[閉鎖音과 狹窄音]
- 다. 목청 띠는 소리와 아니 띠는 소리[有聲音과 無聲音]

<조선어전 초본>에서는 (7가)의 <조선말법>의 “장애되는 자리”를 (13가)와 같이 관점을 달리하여 크게 구강음과 비강음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가 조음위치에 기댄 <조선말법>의 분류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일반성을 떨 수 있는지 속단할 수 없으나 현재는 <조선말법>과 같은 분류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 지적해 둔다. (13나)는 (7나)의 “장애되는 정도와 갈래” 대신에 크게 “다막음소리”와 “덜막음소리”의 두 부류로 나누고 전자에는 “해침소리”[破障音]와 “코소리”[鼻音]를, 후자에는 “갈림소리”[摩擦音]와 “끓임소리”[流音]를 두었다. (13다)는 차이가 없다. 처음부터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에 기댄 음을 제시하기보다 <조선말법>처럼 분류 기준을 명시한 다음, 세분하는 것이 보편성 있는 분류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어쨌든 열운이 <조선어전 초본>을 집필함에 즈음하여 전개한 음학은 김두봉('22)를 바탕으로 하여 최현배의 문자론과 모음체계를 수용하는 관점을 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열운이 (1다)의 <조선말법>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나마, 음성상징론에 관한 인식 체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어전 초본>에서는 모음 중심의 음성상징론을 배풀고 있다. 전자의 “소리의 뜻바꿈”을 “母音의 轉換”으로 바꾸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4) 우리말 가운데 그 홀소리를 바꿈으로 그 말의 表示하는바 觀念이 妙하게 닳아지는 수가 있으니 例컨대 필필된다 하면 그는 얼마나 雄壯하고 猛烈함을 들어내다가 홀소리를 바꾸어 팔 된다 하면 팔팔은 여성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와 같이 홀소리를 바꿈으로 觀念을 다르게 함은 우리말의 특색이니(원문대로 20-1쪽)

(9)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말법>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걸쳐 음성상징론을 전개하였는데 이곳 <조선어전 초본>에서는 모음에 국한시켰다. 품사에 의한 구별을 지양하고 ‘ㄱ : ㄲ, ㄷ : ㄸ, ㄴ : ㄴ, ㄹ : ㄹ, ㄹ : ㄹ’ 등 11개의 모음대립형(型)을 제시하였으며, 양성모음 계열은 여성적이요, 음성모음계열은 남성적이라고 그 미세한 의미 차이를 설명하였다. 음성상징론이 음운론의 소관이나, 아니면 조어론의 소관이나 하는 문제는 어떤 명쾌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지만,²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최현배('37 :

966-73)과 정인승(38)이었다는 점과 관련시킬 때, 열운의 음성상징론은 현재까지는 주목되어야 할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를 조어론에 포함시키지 않고 음학에서 다룬 것은 앞으로 음성상징론의 귀속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학에서 특기할 것은, 이전의 유고 (1가, 나, 다, 라)에서는 품사합성과 품사전성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자학 속에 포괄하여 다루었는데, 〈조선어전 초본〉에서는,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편 “字學”에서는 품사론만 다루고 제3편은 “씨의 겹뎡”, 제4편은 “씨 몸바꿈”을 넣었다. 곧 합성법과, 품사전의 및 파생법을 따로 독립시킨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1나)의 〈조선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진전된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조선어전〉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본 ‘벗은 옷’의 ‘벗은’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언”[관형사]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말법〉에서 언급한 국어의 어휘 구조나 품사식별에 관련된 논의는 이곳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문장편은 (1나)의 〈조선어전〉과 완전히 같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조선어전〉에서 더러 빠져 있었던 연습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보충되고 표현이나 예문의 배치를 조금씩 고쳐 미진한 점을 많이 보완하였다. 표기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님씨, 닛씨’ 등 합성 과정에서 ‘ㄴ’으로 소리나는 단어에 한하여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고 원음을 밝혀 적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법은 조선어연구회 동인지 〈한글〉 창간호에서 내민 “정리한 철자법”과 관련되는데(뒤에 나옴), 〈조선말법〉을 거쳐 〈조선어전 초

24)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송철의('92 : 289-308)을 보라.

본>에서 실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모음으로 된 접사나 어미가 붙을 때 ‘값애, 흠어’와 같이 끊어적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법 역시 <한글> 동인지 창간호에서 확립된 조선어연구회의 표기법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뒤에 나옴)

<조선어전 초본>은 <조선어전>('24)과 비교하여 볼 때 음학 부문에서는 상당한 개편이 있었으나 다른 부문은 형식적 개편 밖에는 특별한 개변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내용적 측면에서 <조선어전 초본>을 평가한다면 <조선어전>의 수정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열운의 수정판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1930년대 전반의 문법서로 지금까지 알려져 온 박승빈의 <조선어학강의 요지>('31), 박상준의 <개정철자준거 조선어법>('32), 강매의 <정선 조선어 문법>('32), 김윤경의 <조선말본>('32), 신명균의 <조선어문법>('33) 밖에 열운의 저술을 더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공통된 문법 유형은 제1유형이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²⁵⁾ 이들 문법의 대부분이 김두봉('16, '22)의 체계를 발판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열운의 <조선어전 초본>은 김두봉('22)에 기댄 바가 많았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품사론과 문장론 부분에서 특별한 변경이 가해지지 않은 것은 김두봉('22)이 이 부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 관련되는지도 모르겠다.²⁶⁾

25) 국어문법의 연구사적 유형에 대하여는 김민수('54='60)을 보라.

26) 김두봉('22)에서는 불입의 “종을글”에서 문자, 형태론, 문장론에 관한 진전된 견해를 붙였다.

3. 열운의 철자법 이론과 어문관의 특수성

열운 장지영 선생은 한평생 교단에서, 때로는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우리 어문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외곬으로 살아 왔다. 그는 스승과 동료로부터 물려받은 문법적 지식을 저술을 통하여 보급하면서 그 나름의 철자법 이론과 어문관을 피력(披瀝)하기도 하였다. 먼저 철자법 이론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열운의 철자법 이론에 관련된 업적

가. 우리글 표기의 몇몇(동광 9, 1927. 1.)〈역문²⁷⁾ 3-23, 201쪽〉

나. “조선어 철자법 강좌”(조선일보 1930. 3. 18, 4.1.-6. 17. 연재)

다. 조선어철자법강좌(活文社, 1930. 8.)〈역문 3-18〉

라. 한글의 양대운동--庚午 一年間 回顧(조선일보 1931. 1.1.〈〈나라사랑〉 29, 178-81쪽)²⁸⁾

열운의 철자법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조선어철자법강좌〉이다. 이 책은 (나)에 보인 바와 같이 조선일보에 55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다. 1930년 3월 18일에 “철자법 강좌를 두게 됨에 립하야”라는 제목 아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을 먼저 쓰고(사진 4)²⁹⁾, 4월 1일부터 연재하기 시작하였는데, 열운

27) “역문”이란 김민수밖에 공편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1977-86)의 줄임말이다.

28) 〈나라사랑〉 29(78)에는 게재지와 발표 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선일보 조사국의 도움으로 정확한 게재일자를 확인하였다.

의 친구인 양재기(梁在機)의 권유로 출판한 것이다.³⁰⁾ 당시 열운은 조선 총독부 언문철자법 제2차 조사위원회에 관여하면서 그 나름의 통일안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 이를 먼저 신문에 발표하고 이어 책자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어 철자법 강좌〉는 그 전후의 다른 저술들과는 달리 한글 위주로 서술하되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태도를 취하였다. 46판 총 150쪽이다. 지은이의 서문을 통하여 이 책의 출판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16) 〈조선어 철자법 강좌〉의 저술 의도

밥이 있어야 살고 옷이 있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글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글이 있습니다. 알기 쉽고 쓰기 쉬운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쓰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잡으려 들지도 않고 저대로 그냥 내 버려 두었습니다…… 올부터는 보통학교 조선어독본도 새로 작성된 철자법대로 고쳐 박게 되었으며 몇몇 분 문서들의 지은 바 이름 있는 소설책도 새 철자법으로 박히는 중이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의 바른 길을 찾아 일정한 법칙을 세우고자 함과 함께 여러분의 갑자

29) 〈조선어 철자법 강좌〉의 조선일보 연재 사실은 자전적 서술 “내가 걸어온 길” (〈나라사랑〉 29, 40쪽)에만 비쳐 있을 따름이고 어떤 어학사료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 연재 사실 등을 확인해 준 조선일보 김덕한 기자 등 조사국 직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표한다.

30) 책에서는 신문 연재분의 서문의 끝부분 “오는 사월 일일부터 한글 철자법 강좌를 두게 된 것입니다.”를 버리고 “이 작은 책이나마 여러분 앞에 내어 놓게 된 것입니다.”를 넣었으며 “경오유월스무여월해날 장지영 씀”을 대신 써 넣었다. 그리고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끝 부분에서는 “(十五) 다만과 다못을……”을 추가하고 연재분이 조만간 단행본으로 출판한다는 내용의 “謹告” 부분을 삭제하였다.

44 새국어생활 제7권 제3호('97년 가을)

기 쓸 수 없다, 갑자기 볼 수 없다 하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작은 책이나마 여러분 앞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현대 맞춤법에 따라 고쳐 적음)

(16)을 통하여 우리는 열운의 <조선어 철자법 강좌>가 1930년 2월에 개정·공표된 <언문철자법>의 보급을 위하여 저술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1930년의 <언문철자법>은 형태음소적 원리를 바닥에 깔고 있었던 탓으로 음소적 원리에 젖어 있던 당시의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맞춤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간된 것이 열운의 저술임을 알 수 있다. 언문철자법의 시대적 사명과 보급 및 계몽에 관련된 문제는 1930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5라)의 “한글의 양대운동”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개정철자법의 공포가 계기가 되어 언론기관과 문사들이 새롭게 글을 쓰고 조선어독본이 개편되고 예수교 단체에서 새 철자법을 강습하게 된 것을 한글의 정리운동으로 보았으며 언론기관에서 문자보급반을 조직하여 문맹 타파의 성과를 올린 것을 한글의 보급운동으로 보았다. 열운은 새해에는 조선일보사가 중심이 되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포부를 적었다. 이런 증언을 통해서 열운은 총독부의 언문철자법의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곧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그것은 주시경 학파의 철자법 이론이 대부분 총독부 철자법에 수용된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용을 검토하면서 열운의 철자법 이론을, 그 전후의 글들과 관련 시킴은 물론, 언문철자법이나 한글맞춤법과 관련시켜 가면서 특수성을 엿보

기로 한다.

(17) 〈조선어 철자법 강좌〉의 목차

가. 표준어, 나. 자음의 경음, 다. 발음, 라. 실제발음, 마. 받침, 바. 동사의 시간, 사. 동사의 준비칭, 아. 모음의 조화, 자. 토의 구별, 차. 형용사와 동사의 불규칙, 카. 자체변화(字體變化), 타. 언어의 생략, 파. 관용상의 착오

(17가)에서는 표준어의 성립 조건을 다음의 네 조목에 걸쳐 제시하였다.

(18) 표준어의 성립 조건

- 가. 서울말로 정할 것.
- 나. 이 시대에 쓰는 말로 표준을 정할 것.
- 다. 학리에 맞고 규모가 있는 말로 표준삼아야 할 것.
- 라. 순연한 조선말을 한문에 붙여 쓰는 것은 옳지 않음.

(18 가, 나, 다)는 언문철자법과 한글맞춤법의 표준어 사정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18라)에서 열운은 순수한 조선어를 한자로 억지로 붙여 쓰는 일을 경계하였다. 역사적으로 한문화를 숭상한 탓으로 우리의 고유어의 어원을 한자에서 구한다든지 발음이 비슷하기만 하면 한자로 견강부회(牽強附會)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생각, 대신, 대추, 구경, 양추질, 지금, 생기다’를 ‘生覺, 代身, 大棗, 求景, 養齒질, 只今, 生起(다)’와 같이 한자로 적는 일을 보는데 이런 일을 용서한다면 문법[맞춤법]이 어지러워지고 우리말의 어휘가 줄어들고 동시에 우리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17나)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된시옷을 버리고 같은 자음을 병서하는 방식이 좋다고 하고 해당 자모별로 예를 보이었다. 병서 표기법은 주시경 때부터 주장해 왔고 그의 후학들이 한결같이 뒷받침해 오던 것으로 (15가)의 〈동광〉 지상의 설문에서도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었던 표기법이다.³¹⁾ (17다)에서는 ‘다, 더, 도, 튜, 샤, 저, 초’ 등을 ‘자, 처, 도, 투/튀, 사, 저, 초’로 발음함은 잘못이라고 하고 원음대로 발음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과 사람에 따라 올바른 발음법을 지키지 못하는 당시의 반절표의 발음을 올바로 인도한 것으로 생각한다. 열운은 〈동광〉 설문에서도 똑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17라)에서는 고유어건 한자어건 실제로 발음하는 대로 쓰고 역사적 표음은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더짓, 털도, 서울, 괴자’ 등을 ‘저짓, 철도, 서울, 기자’ 등으로 적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ㄹ’ 자의 폐기도 포함되어 있다. ‘ㄹ’ 자의 폐기는 주시경부터 주장되어 왔는데 〈동광〉 설문에서 열운은 살려 쓰자는 답변을 낸 바 있다. 열운은 ‘녀름’과 같은 고유어는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녀자, 룡산’ 등의 한자어는 두음법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 말을 고유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녀름’류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언문철자법에서는 한자어의 경우는 원음대로 적고 한글맞춤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 두음법칙을 지키는 쪽을 택하였다.

(17마)는 받침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ㄱ, ㄴ, ㄷ, ㅁ, ㅂ, ㅅ, ㅇ’

31) 〈동광〉 지상의 설문에 대한 분석은 고영근('96)을 보라.

의 7개 밖에 ‘ㄷ, 스, ㅎ, ㅋ, ㅌ, ㅊ’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예를 보인 것이다. 이런 견해는 주시경학파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동광> 설문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긍정 반응을 보인 주제인데 언문철자법에서는 ‘ㅎ’ 받침이 빠졌으며 한글맞춤법에서는 그대로 수용되었다.³²⁾ 열운은 당시의 표기법이 들받침으로 ‘ㄷ, ㅌ, ㅊ’의 셋밖에 없어 문법(맞춤법의 뜻임)이 정리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ㄱ, ㄴ, ㄴᄂ, ㄴᄃ, ㄴᄄ, ㄴᄅ, ㄴᄆ, ㄴᄇ, ㄴᄈ, ㄴᄉ, ㄴᄊ, ㄴᄋ, ㄴᄌ’을 더 두어야 한다고 하고 예를 들었다. 이 가운데서 ‘ㄴᄂ, ㄴᄃ, ㄴᄄ, ㄴᄅ, ㄴᄆ, ㄴᄇ’은 언문철자법에 보이지 않으며 한글맞춤법에는 ‘ㄴᄄ, ㄴᄇ’ 밖에는 모두 채택되어 있다. ‘ㄴᄅ’ 받침은 예시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본서를 비롯한 열운의 저서에 나타나는 ‘갈애, 흠애’와 같은 표기를 위해 마련한 받침인 것으로 보인다.

(17바)는 동사의 시제요소 ‘있, 겠’ 등의 표기를, (17사)는 높임의 ‘시’의 표기를, (17아)는 동사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표기를 각각 다루었다. (17자)는 자음과 모음에 관계없이 쓰이는 통용토와, 관계를 맺고 쓰이는 분간토의 용법을 보이였다. (17차)는 용언의 불규칙활용의 표기다. 김두봉처럼 원형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덥고, 더워; 낮고, 나아; 길고, 기니’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지문에는 군데군데 원형을 밝힌 표기가 눈에 띄고 있어 혼란을 보이고 있다. <동광> 설문에서는 ‘ㅂ, ㅅ’ 불규칙용언은 원형대로 적고 ‘ㄴ’ 불규칙활용은 소리나는 대로 적자고 하였는데 이곳에서는 모두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 사이 견해가 바뀌었다. 언문철자법과 한글맞춤법에는 열운의 견해와 같이 모두 소

32) 열운은 언문철자법에서 ‘ㅎ’ 받침이 빠진 것이 일본인 가나자와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나라사랑> 29, 40쪽을 보라).

리나는 대로 적었다. 또 열운은 앞에서 보인 ‘ㅼ’의 받침의 실례로 ‘가르고, 갇아’를 들었다. 이런 표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여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데서 채택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17카)는 파생어 형성에 나타나는 표기문제를 다루었다. 모음으로 된 접미사는 그것이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모두 원형을 밝히는 태도를 취하였다. ‘웃음, 묻엄, 길역지’가 그러한 예이다. 언문철자법과 한글맞춤법에서는 규칙적인 ‘웃음’과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히고 ‘무덤’의 ‘엄’처럼 불규칙적이면 원형을 밝히지 않았다. 열운의 견해는 주시경학파의 일관된 표기법을 따른 것이다. (17타)는 준말이 형성될 때의 표기법이다. (17파)는 관용적인 잘못을 범하는 예를 들었다. ‘받으면’을 ‘바드면’으로 읽으면서 ‘봣으면’으로 쓰는 예가 그러하다.

열운은 (15가)의 <동광> 설문에서 ‘여름, 이르다’ 등은 ‘녀름, 니르다’ 등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조선어 철자법 강좌>에도 모두 그대로 적혀 있다. 이런 표기는 <한글> 창간호의 “정리한 철자법”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열운의 후기 문법적 저술에도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동광> 설문에서도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아 주시경 학파의 통일된 견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문철자법>과 <한글맞춤법통일안>에는 두음법칙을 지키는 쪽이 채택되어 있다.

열운의 어문관은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해방 전의 어문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어 철자법 강좌>를 비롯하여 다음 두 논설을 들 수 있다.

(19) 열운의 해방 전의 어문관에 관련된 업적

가. 가가날 기념에 대하여(조선일보 1927. 10. 24.)(역문 3-22, 26-7쪽)

나. 우리말에 섞인 한어 문제(조선일보 1930. 11. 19.-25.)(역문 3-22, 155-64쪽)

(가)에서 열운은 훈민정음의 반포일을 민족갱생의 기념일이라고 하였다. 뜻을 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뜻을 펴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큰 기념일로 삼기로 한 당시의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의 한글날이 예사로 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순한 기념일로 격하된 오늘의 한글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견해의 표출이다.

(나)에서 열운은 '책, 필요, 학교, 신문' 등 한자어라도 널리 퍼진 말이면 버리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열운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베풀었다.

(20) 열운의 한자어에 대한 견해

우리가 쓰는 漢語 가운데 우리가 따로 쓸 만한 말이 지금에 없고 또 옛말로도 찾을 수 없으면 이를 우리 사람에게 두루 써서 모르는 이가 없이 된 말은 이것을 글로 쓸 때에도 漢字로 쓰지 말고 우리 한글로 쓰되 그것도 그의 본음을 찾아 쓴다고 힘을 들이지 말고 우리 귀에 즉각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를 미리 우리 한글로 적어 쓰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현대 맞춤법에 따라 고쳐 적음)

이에 덧붙여 열운은 '學校, 必要'와 같은 말을 '하쑤, 피료'로 적어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말과 글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父親/아버지, 理由/까닭, 家屋/집'과 같이 고유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나, '內容/속중, 鬼神/귀갓, 腹案/속셈, 官吏/벼슬아치'와 같이 역사적으로 살려 쓸 수 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15가)의 〈동광〉 지상의 설문에서도 볼 수 있고 (17라)에 매우 자세하게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일상화된 한자어의 수용에 대한 열운의 긍정적 태도는 그 당시 주시경학파에서 전개한 지나친 언어순화운동이 사람들의 반축을 사고 있었던 현실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글로 문자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려운 한자는 쓰지 않게 되니 시대를 앞지르는 어문관의 피력임에 틀림없다.

열운의 글에서, 다른 주시경 후계학자들과는 달리, 자연스런 어휘구사와 표현이 많은 것도 그가 지니고 있었던 어문관과 직접 관련되어 보인다. 열운은 일상화된 한자어의 수용과 함께 한자를 가급적 줄여 쓰자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는 점진적 한글전용과 한자폐지를 병행하는 어문관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문정책의 방향이라고 하겠다. 열운은 (17라)의 “附記”에서 새로 들어오는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고유어로 짓는 것이 한문을 배우지 않게 될 후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名詞, 動詞”를 “임씨, 움씨”로 지어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주시경 후계학자들이 한결같이 지켜 온 어문운동의 큰 흐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운은 이 책의 대부분의 용어를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어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열운의 해방 후의 어문관은 해방 전과 원칙적으로 같으나 세부에 가서는 차이가 있다. 관련 업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열운의 해방 후의 어문관에 관련된 업적

- 가. 한자 폐지 실행회 발기 취지서(1945. 9. 29.)(김민수,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860-63쪽)
- 나. 주왕산(발행), 주시경, 조선어문법(정음사, 1946. 4.)의 “서문”.
- 다. 열운자료집(<나라사랑> 29, 1978)³³⁾
 - ㄱ. 남을 부를 때 쓰는 경어(1947. 3.)/ㄴ. 절박한 요청(1949. 7.)/
 - ㄷ. 겨레와 겨레말(1949. 9.)/ㄹ. 한글 반포 502주년을 맞이하여(1948)/
 - ㅁ. 한글날의 유래(1956)/ㅂ. 이러한 35년(1952. 12.)/
 - ㅅ. ‘사랑’의 어원 고찰(?)/ㅇ. 인사말씀(1949. 4.)/
 - ㅈ. 글과 우리(1955. 10. 12.)/ㅊ. 세종의 날을 맞이하여(?)

(가)는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수강생들이 주동이 되어 결성된 한자폐지 실행회 발기준비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열운의 생각이 영근 것이라 보고 일단은 열운의 어문관에 관련된 자료로 보았다. 일본에서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것이 한자를 사용한 데 있다는 실험결과를 인용하면서 삼천만 동포가 새 문화를 건설하여 세계문화를 지도하려면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로 일상언어생활을 영위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초등교육에서 한자를 빼고, 신문, 잡지, 편지 겹봉 등 일상생활에서 한글만으로 문자생활을 영위하자는 실행 조건도 명시하였다. 이곳에서 표백된 주장은 (다),

33) “열운 자료집”에서 어문 관련 논설만 뽑아 제시하였다.

ㄹ, ㅀ, ㅄ)에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한글 중심의 문자생활은 개화기의 주시경을 시발점으로 하여 일제시대의 조선어학회의 국어운동을 거치는 사이에 영어로 온 우리 어문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였다. 이런 견해를 우리는 앞의 〈조선어철자법강좌〉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실마리를 잡았거니와 해방을 맞으면서 그것이 가속화되어 실천의 계기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을 맞아 잃었던 말과 글을 되찾아 한글 중심의 문자생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열운의 사고는 (19가)에서 가가날을 민족갱생의 기념일이라 규정하고, (다ㄷ, ㅁ, ㅂ)에서 세종의 날과 한글날을 기리고 한글 간소화안을 비판하며, (18나)에서 우리 어문의 과학적 정리에 첫 삽질을 한 주시경을 추모하는 글에서도 맥맥히 흐르고 있다.

열운의 어문관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다ㄷ)에서 엿볼 수 있다. 열운은 일본어의 '상(樣)'을 고유명사의 경칭으로 쓰는 해방 직후의 언어생활을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역사적 전거를 대어 가며 '선'(善, 先)을 고유명사의 경칭으로 쓰자는 견해를 내었다. '사랑'의 어원을 '다솜'에서 찾는 (다ㄸ)도 같은 계열의 글이다.

4. 마무리를 지으며

필자는 올해 10월의 문화인물인 열운 장지영 선생을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들여다본다는 취지 아래에서 그의 문법적 사고와 어문관의 특수성을 살펴해보았다. 논의된 바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열운은 주시경의 가장 이른 제자로서 일찍부터 그를 보필하였으며 두

번에 걸쳐 문법책을 저술하였고 한 권의 철자법 관련의 저술과 어문 관계 논설을 남기었다.

2. 첫번째 문법은 1921년부터 시작하여 1924년에 완성된 유인본 〈朝鮮語典〉이었다. 이 책은 〈조선어문전〉이라는 음학과 품사론 중심의 시험적인 저술을 발판으로 삼아 형성되었다. 음학은 대체로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말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되 김두봉의 〈조선말본〉을 가미하였고 자학은 주시경의 서술방식을 바닥에 깔되 체계와 용어에 있어서는 김두봉의 〈조선말본〉을 수용하였다. 문장론은 문장의 분류를 간결화한 것밖에는 김두봉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책의 음학과 자학은 〈조선어전강의〉라는 제목으로 활자화되기도 하였다.
3. 두 번째 문법은 1935년경의 유인본 〈朝鮮語典 抄本〉이다. 이 책은 〈조선어전〉의 수정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소리편에서 변경이 심하다. 소리편은 김두봉의 〈김더조선말본〉('22)와 최현배의 초기의 문자와 성음학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다시 쓴 것이다. 이곳의 음성상징론은 어학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 현대의 음운론과 조어론연구에 서도 음미의 가치가 있는 서술이다.
4. 열운은 주시경 이래의 철자법 연구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나름의 이론을 지니고 있었다. 맞춤법에 있어서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바닥에 깔면서 조선총독부의 철자법 사정에 참여하였고 이르는 과정에서 〈조선어 철자법 강좌〉(1930)을 저술하여 언문철자법의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이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에 참여하여 두 철자법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어 철자법 강좌〉의 역사적 의

의가 다시금 평가될 필요가 있다.

5. 열운의 어문관은 해방 전과 해방 후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해방 전에는 한자어라도 고유어와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말로 인정해야 하며 한자의 수를 줄이되 학술용어는 우리말로 만들 것을 주장하는 점진적이고 절충적인 어문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방 후는 한자폐지론에 기울어져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한자를 빼 버려야 한다는 지론(持論)을 견지하였다. 이는 물론 장지영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통일된 사고체계였지만 열운은 열운대로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열운의 글을 읽으면 한 군데도 구차스럽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열운의 주위에는 한자어를 기피하느라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어도 우리말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지닌 분들이 없지 않았는데 열운은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자연스러운 어휘와 표현을 구사하였으며 문장을 엮음에 있어서도 논리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 흔적이 많다. 이는 모두 열운이 지니고 있었던 어문관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1997. 7. 31. 정오에 마침)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 _____(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도서출판 길벗.
- _____(1995a), “주시경, 국어문법의 형성에 얹힌 문제”, 대동문화연구 30.
- _____(1995b),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_____(1996), “1920년 후반의 한국어문의 표준화운동에 대하여”, 제3차 아시아-태평양 한국학회의 발표 논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 동양학부.
- 권인한(1990), “우리말본 ‘소리갈’의 수정과정”, 국어국문학 104.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신문관.
- 김민수(1954=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 어학사, 한성도서주식회사.
- 문제안(1993), “〈조선어전〉에 관한 회상”, 한힌샘 주시경 연구 5·6.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 _____(1996), “한글 맞춤법의 연혁과 원리”, '96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연구원.
- 장지영(1973), “내가 걸어온 길”, 월간 중앙 3.〈나라사랑〉 29, 1978에 다시 실림)
- 정인승(1938), “모음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 한글 6.9.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_____(1914), 말의 소리, 신문관.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_____(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하동호(1978), “조선어전의 계보”, 나라사랑 29.

한힌샘 주시경 연구모임(1993), 한힌샘 주시경 연구 5·6, 한글학회.